

“원폭피해자특별법 법안심사서 통과돼야”

합천평화회의집, 9일 성명서

오는 11월 11~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국인원폭피해자특별법안”이 상정되며, 의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인권 및 복지 활동 시민단체인 합천평화회의집(위원장 윤여준)은 11월 9일 한국인원폭피해자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데 환영을 표하고, 19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길 바라는 기대를 전했다. 합천평화회의집은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 지원법 및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한 지원이 책임과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한일정부 업무 위탁으로 재한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신청 및 교부 등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천평화회의집은 “한국인원폭피해자특별법안이 심사안건에 포함된 것은 2004년 특별법 제정운동 시작 이후 처음”이라며 “이번에 의결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어려울지 모른다.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문화재法 지각변동, 예의주시 필요

문화재청, 문화재기본법 제정 추진...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문화재청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문화재기본법 제정에 나서며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문화재청은 11월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 공청회를 열고 ‘문화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문화재기본법’은 최근 유네스코등재유산이 1995년 3건에서 42건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과 향유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며 정부차원에서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문화재 관련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돼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2010년 문화재수리법, 2010년 매장문화재보호법 등 이미 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법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기본법 입법방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 모법인 문화재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재활용법, 세계유산보존관리 특별법 등이 추가되며, 2단계에서는 기존 문화재 보호법이 모두 분법돼 19개의 세부법으로 나뉘게 된다.

이날 기본법안 설명을 맡은 채정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청회

등을 더 열고 20대 국회에서 상정 계획으로 201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법안 중에는 특히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문화재 향유권 강화, 비지정문화재 관리 명시 등에서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중 문화재 향유권은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권한을 명

문화재영향평가·비지정문화재 등 불교 성보 관리에 직접 영향 전망 향유권 강화, ‘양날의 검’ 될 수도 비지정문화재 보존방안 수립돼야

시하는 것으로 넓게는 문화재를 공유재산으로 보존 활용하는 권리다. 하지만 국민의 향유권만을 강조하다보니 개인과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불교계의 경우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향유권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논리도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에 기반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현행법 상에도 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입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 향유권 만을 강화하면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받게 된다”며 “사찰을 비롯해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한 재산권 보호 부분도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문화재영향평가 또한 사찰의 불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재영향평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사전 영향을 평가제도다.

또 현재 시도지자체장이 문화재적 가치로 인해 직접 지정한 문화재자료의 경우 상위 시도지정문화재와의 개념 중복으로 비지정인 향토문화재로 개편될 수 있다. 향토문화재의 경우 보존과 관리 등이 지자체의 자율로 진행돼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심주안 조계종 문화재팀장은 “불교문화재 7만여 점 중 문화재자료가 상당수 있다. 문화재 행정 공백으로 보존관리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팀장은 “비지정 불교문화재가 6만여 점에 달하는 상황에서 문화재 기본법 제정과 함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도 함께 수립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GO·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

아름다운 동행, 12월 4일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열린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016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저소득가정의 지원 사업 △대북 또는 탈북자 지원 사업 △환경 보전 및 의식 고취를 위한 지원 사업 △네पाल 지진피해 재해복구 등 국제개발 및 구호분야 △기회 지원 분야 등 5개로 구성된다. 지원규모는 총 1억 원이다. 국내 단체들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공모사업 중 국제개발 및 구호분야는 네pal 지진피해 재해복구를 위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배분된다.

공모는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단체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4일까지 이메일(thenanum@hanmail.net) 및 방문, 우편 접수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12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02)737-9595 **박아름 기자**

지역 종교인 ‘생명평화’를 이야기하다

종로 금선사·서울교회 등 11일 종교인 문화마당 개최 각 종교 경전 합송 ‘눈길’

종로 지역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 금선사·서울교회·세검정성당·원불교사지교당은 11월 11일 금선사에서 ‘제3회 종로 지역 종교인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마당에서는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의신학 교수 박준양 신부가 연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으며, 평화에 대한 각 종교 경전 합송이 이뤄졌다.

박준양 신부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종교 간 평화와 환경 파괴 근절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 신부는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지구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면서 “다행스럽게도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포용과 존중의 자세를 가질 것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



서울 금선사·서울교회·세검정성당·원불교사지교당은 11월 11일 금선사에서 ‘제3회 종로 지역 종교인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직도 종교 간에 반목과 질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상생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리야말로 자못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현재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종교인들은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상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

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종교 경전 합송에서는 불교는 <법구경>의 경구를 소개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도 자신의 경전에 내포된 평화에 대한 경구를 합송했다.

이번 종교인 모임에 대해 금선사는 “이웃종교간 이해와 화해를 통한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생명평화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음식, 슬로푸드와 만나다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서 사찰음식 홍보행사

11월 22일까지 고양 킨텍스서

사찰음식과 불교의 차문화가 슬로푸드(단장 진화)는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2015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에 참가, ‘일상다반사-마음을 다스리는 차’를 주제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한국 사찰만의 독특한 차 문화를 선보인다.

차를 줄여주고 수행에 도움을 주는 까닭에 예로부터 스님들은 차를 가까이 해 왔다. 그렇다면 차 마시는 사회를 장려하는 슬로푸드국제협회의 공식 프로젝트 ‘SLOW CHA’와 만난 사찰 차 문화의 모습은 어떨까.

사업단은 이번 행사에서 차와 수행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특별히 조명할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관람객들과 함께 고즈넉한 산사(山寺)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눌 계획이다.

계절과 음양오행에 따른 사찰의 차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된 사진전과 전통 다기·다구 전시, 차와 함께 곁들이는 먹물거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차를 맛볼 수 있는 시식·시음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신성민 기자**

또 행사장 내 사찰음식 홍보부스에서는 텀블스테이 참가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는 ‘스님과의 차담’을 위한 체험 공간을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알맞게 숙성된 차에서 우려나는 향과 스님이 건네는 따뜻한 조언만으로도 바쁜 일상을 잊고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편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은 ‘차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21일)라는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혜성 스님은 1일 회(18일~22일) 선차 시연 및 차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식문화 단체와 각국 전문가가 모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생명존중과 온 세상의 화평을 기원하는 음식, 사찰음식’에 관한 발표(21일)도 예정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 및 컨퍼런스 참여는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www.slowfoodfestival.org/)를 통해 사전 접수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사찰음식의 정신과 식문화 개선을 위한 슬로푸드의 가치가 만난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와 자비의 정신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1회 불교인권상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불교인권위 20일 조계사서 시상식... 창립25주년 기념법회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 이하 불교인권위)는 11월 20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25주년 기념법회 및 제2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올해 불교인권상 후보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제를 넘어 아시아 여성들 네트워크인 ‘TAW’, 이형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시상식’을 거행한다. 올해 불교인권상 후보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제를 넘어 아시아 여성들 네트워크인 ‘TAW’, 이형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시상식’을 거행한다. 올해 불교인권상 후보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제를 넘어 아시아 여성들 네트워크인 ‘TAW’, 이형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시상식’을 거행한다. **신성민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3후보 모두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 경력이 출중했다”면서 “정대협은 정신대 문제의 발기라고 할 만큼 국제·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위안부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역할과 공로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교인권위는 25주년을 맞아 창립기념법회를 앞두고 있다. 1990년 11월 20일 창립한 불교인권위는 그간 사형제 문제, 비전향장기수(형법 제98조 간첩죄)를 적용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양심수로서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자) 송환문제 등 대사회적 활동을 펼쳐왔다.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11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25주년을 기점으로 사회적 사안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 인권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불교인권위는 제25주년 창립기념법회에서 불교계 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을 치하해 태고종 성원 스님과 관음종 명진 스님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신성민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평화통일사 위임 공고 (돈거래 없는 위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7번지 (76-35)
전화 031)952-7031 / 핸드폰 010-9415-5818

대한불교조계종 성자 이차돈 선양회 / 평화통일사 일선 운동암

상기와 같은 주소와 절명은 틀림이 없으며 상기자는 10.27법난 피해자로서 인하여 35년간 휠체어로 생활하며 가담수호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 연령 차이 없이 학득 차별 없이 신심이 돈독한 비구니 스님을 주지로 모시겠습니다. 주지스님이 오시면 평화통일사 주지로 위임하고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삼직을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비구니 및 신도 통일선원을 개설하고자 각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신심을 다하시면 됩니다. 임진각 부근 통일로 부근 태극기 30여개가 크게 게양되어 있어 통일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오도산 산 밑에 아담한 평화통일사가 자리잡은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신도는 100명 이상 됩니다. 신도는 주지스님의 노력에 많고 적고 합니다. 서울과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전철도 있고 직행버스도 있고 서울까지 교통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돈은 받지 않으니 물질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지 위임을 합니다. 일평생 주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휠체어 타고서 생활하는 소남은 조계종 종중을 세번 역임하신 윤교암 대종사님을 은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수계도 받았습니니다. 자비보살입니다. 근간 불교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12선사 중 한분입니다. 큰스님을 은법사로서 시봉을 5년간 직접한 바 있는 남자입니다. 뜻이 있는 스님은 속히 왕림하시도록 바라며 선착순으로 할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2015년 11월 12일

한국불교예술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세계불교사회평화봉사회 총재
대한불교조계종 성자 이차돈 선양회 총재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재단 고문
서부전선 호국 대선사 세계평화 법륜대행진 한국승가 푸른부대본부 대표

평화통일사 운동암 올림

조계종 대덕스님들께서 많이 찾아오신 절입니다.